HRD 12월의 이슈

-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

HRD 동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활용 우수사례 선정 기업 **10개**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학생·학교 시상 **68팀**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 우수사례 발표 **15점**

10월 고용시장, 월간 역대 최고 고용률 달성 **63.4%**

Vol.117
December 2025
12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청년 취업을 위한 든든한 동행을 이어가겠습니다!

—

지난 12월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열고,
신규 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가 재정·홍보 등을 지원하는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입니다.
멤버십 가입 기업은 '21년 11개사로 출발해 '25년에는 총 140개사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다양한 지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습니다.

HRD동향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Vol.117
December 2025
12

책의 제목을 클릭하거나, 책의 끝단을 클릭한 채로 넘겨주세요.

cover story
청년들의 잠재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 혁신의 불꽃을 피워냅니다.

통 권 제117호
발행일 2025년 12월 11일
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 소 (우)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능력국
052-714-8258
구독신청 및 문의 ws0920@hrdkorea.or.kr

HRD 현장

정책동향
04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05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현장동향
06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
07 되찾은 "노동절 정부포상"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08 비스포크(Bespoke) 시대. 이제 구직자·기업 고용서비스도 맞춤형으로!
08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해법 찾는다.
09 인적자원개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아세안+3가 만들어갑니다
10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비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1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발표회' 개최
12 열정과 기술로 그려낸 꿈의 스케치, 국가기술자격으로 색을 입히다!
14 '인력에 대한 투자가 곧 경쟁력' 인재육성로드맵으로 육가공 전문가 키운다
15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도약 추진
16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17 스텝(STEP)을 통한 성장 이야기
18 온통청년 주요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
19 취업 준비 혼자서 어렵다면? 고용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19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20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쾌거
21 연구와 현장의 대표주자 '폴리텍'과 '카이스트(KAIST)'가 만났다
21 노사발전재단, 한·일 초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 심포지엄 개최

연구 INSIDE

22 [계간] 2025 가을호 고용이슈
22 2026 HRD Trend Report
23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in Nine Countries
23 중장년 퇴직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구

고용 BRIEF

24 2025년 10월 고용동향

기관 LINK

25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직업능력개발사업 insight

26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이란?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정부와 기업이 청년 취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1년 11개사와 함께 시작한 청년도약 멤버십, ’25년 140개사로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월 2일(화) 1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행사」를 개최하고, 신규가입 기업에 멤버십 가입 증서를 수여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청년취업 지원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신규 가입기업) LG유플러스, GS리테일, 셀트리온, LS, 컴투스, 현대홈쇼핑, 에쓰오일, 한국무역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에스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우수 활동기업) 카카오, 아모레퍼시픽재단, 씨엔씨레볼루션

청년도약 멤버십은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선도모델 로 기업은 자체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에게 일경험·인턴·훈련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재정지원, 모집 홍보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1년 삼성전자, 포스코, SK하이닉스, 롯데그룹 등 11개사로 시작해 오늘 11개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멤버십 가입 기업이 140개사로 대폭 늘어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가입 기업 엘지유플러스와 우수활동기업 카카오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엘지유플러스는 실무형 정보기술(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유레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카카오는 현직 경험을 보유한 강사진과 함께 팀 프로젝트 기회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개발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카카오테크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청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믿음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활동에 앞장서 주신 가입기업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청년 한명 한명이 가진 잠재력이 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신규가입 기업 주요 프로그램

기업명	주요활동
㈜엘지 유플러스	❶ 유레카 SW교육과정(KDT) (’24년~, 기수당 120명, 6개월) 프로트엔드, 백엔드 개발자(실무형 IT 인재) 육성 ❷ 와이낫 SW 캠프(KDT) (’24년~, 기수당 30명, 6개월) 클라우드·빅데이터 분석 및 실무 기반 서비스 개발 과정
GS리테일	❶ 공정채용제도 운영 스펙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스펙초월 전형’, MZ세대 현직 구성원이 참여하는 ‘그룽(Grow-with-us) 면접관’ 제도 운영 ❷ 점포영업담당 직무 전환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반기별 20~30명, 6주)
㈜셀트리온	❶ 셀트리온과 함께 하는 멘토링 데이 (’25년~, 연 40명) 바이오 산업 취업 희망 청년 대상 진로탐색 지원, 현직자와의 소그룹 멘토링을 통한 취업 동기부여 ❷ 셀온(Cell-On) (’25년~, 반기별 40명, 3개월) 기업이 원하는 즉시 전력형 바이오 청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셀트리온 현장실습 교육, 수료생 입사지원시 가점 부여
㈜LS	❶ LS 빅데이터 스쿨(KDT) (’24년~, 연 60명, 4개월) 전기·전자 및 제조분야 현장 데이터 분석가 인력 양성 프로그램 LS그룹 현직자 멘토링 및 직무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❷ 찾아가는 디지털 교실 (’25년~, 연 300명, 4시간) 지역 내 직업계고 재학생 대상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AI 실습 교육 등 양질의 디지털 교육 제공(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컴투스	❶ 컴투스 캠퍼스 (’19년~, 연 40명, 8주) QA/서버/블록체인 등 게임 분야별 업무수행 가능 인력 양성, 취업 지원, 우수 수료시 채용 연계 등 우대 ❷ 컴투스 GENIUS 인턴십 (’19년~, 연 20~30명, 3개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대상 채용연계형 인턴십 프로그램 우수 수료시 정규직 입사기회 제공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2025년 12월 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할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통한 취업연계 확대
- (일하는 외국인) E-9 노동자 주말훈련, 내일배움카드 등 지원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2월 5일(금)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참여대학인 대림대학교에서 진행되었고,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학, 기업, 유학생 등이 참여해 외국인 직업능력개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이수 후 취업한 유학생도 참석하여 취업경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학습병행 이수 후 약 1달 만에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유학생 ○○ 씨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 후 진학과 취업을 고민하던 중, 학교에서 일학습병행을 소개해 줘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일학습병행의 차별점이며, 취업 후 업무 수행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경험을 쌓고 기술을 더 배우고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기업 관계자는 “기계제조업 분야에서 한국인 청년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학습병행을 통해 이론교육·현장훈련 상호 연결되는 맞춤형 훈련을 거친 성실한 유학생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이수한 유학생(국내 대학 졸업 필요)은 별도 경력이 없어도 전공에 상관없이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 원활히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관련 비자 제도 개선 사항>

(현재) E-7 취업비자 취득 요건	(개선) E-7 취업비자 취득 요건
• **(국내 학사 이상)** 전공 무관 직종 취업 허용 • **(국내 전문학사)** 전공 무관 직종 취업 시 1년 이상 경력 필요	• **국내 전문대 졸업 후 일학습병행 이수자는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 (참고) 일학습병행 훈련 시작은 국내 대학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모두 가능하나, E-7 취업비자 발급은 국내 대학 졸업 이후임

또한 이번 제도 개선과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확대를 위한 운영기관 신규 모집*이 예정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양 부처는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협업을 강화하여 직업훈련을 통해 우수한 유학생이 원활히 취업·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 대학, 신규 대학 모두 신청 가능 (신청기간 : 12.5.~12.26. 설명회 12.15., 자세한 사항 www.hrdkorea.or.kr 공지사항 참고)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E-9 비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E-9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 향상과 안전을 위해 주말훈련* 및 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직무기초, 산업안전, 한국어 등으로 훈련과정 구성하며, 참여자에게는 훈련수당 지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통해 우수외국인을 숙련인력으로 양성하여 지역사회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으로, 학업과 현장경험을 균형 있게 쌓은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

2025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모두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일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 개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25일(화) 중소기업 DMC 타워 컨벤션홀(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그간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미디어산업 종사자, 정보기술(IT) 기업 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과 현장 소통을 진행해 왔으며, 2025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은 이러한 릴레이 현장 방문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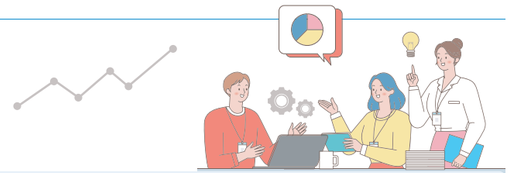
이번 타운홀 미팅에는 제조, 정보기술(IT), 택배, 웹툰,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으며, 종사 형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정규·비정규직, 기간제·시간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기회가 되었다.

행사는 그간 진행되었던 권리 밖 릴레이 현장 방문의 성과를 공유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장관과의 정책 소통과 근로감독관 명칭 변경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메인 세션인 장관과의 정책 소통은 장관뿐 아니라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자들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박재철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참석자들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수나 계약과 관련된 분쟁,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문제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충들을 토로하며, 모든 일하는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주요 참석자 발언

(성차별·괴롭힘 관련)
"회사가 동료들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고객의 괴롭힘을 방치하고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를 보며, 도와줄 방법이 없어 괴로웠어요." (웹디자이너 ㄱ씨)

(계약·보수 관련)
"프리랜서들은 늘 불공정 계약과 보수 지연·미지급 등 경제적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권리 보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통역사 ㄴ씨)

(사회안전망 관련)
"아직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 ㄷ씨)

(법적 보호 필요성)
"N잡러로서, 하는 일은 달라져도 제 자신은 모두와 같은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N잡러 ㄹ씨)

김영훈 장관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라면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법률로써 선포하고, 국가와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릴레이 현장방문과 우리 노동부 타운홀 미팅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권리 밖 노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예산 논의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되찾은 "노동절 정부포상"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2025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되찾은 "노동절 정부포상"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 노동절 정부포상 유공자 신청 접수('25.11.26.~12.2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6일(수)부터 12월 26일(금)까지 포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내년 「노동절 정부포상」(舊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은 62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여 정부포상을 하는 첫해인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 노동절 정부포상은 1975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까지 17,817명에게 포상

정부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플랫폼·특수형태·프리랜서 종사자, 소규모 영세사업장 종사자, 청년·여성·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며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포상의 기회를 주고, 그간 포상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숨은 유공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 포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 대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 상위 훈격의 포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 (포상규모안) 훈장(18점), 포장(18점), 대통령표창(55점), 국무총리표창(59점), 장관표창(60점)

후보자 추천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1과)에 추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추천서 작성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2026 노동절 정부포상 안내」 참조

추천서류가 접수되면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을 거쳐 공적 심사를 통해 포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일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2026년 노동절을 기념하며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비스포크(Bespoke) 시대 이제 구직자·기업 고용서비스도 맞춤형으로!

2025년 11월 26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비스포크(Bespoke) 시대 이제 구직자·기업 고용서비스도 맞춤형으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5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 개최 -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우수사례 확산 계기 마련

(구직자 사례) "구도패 참여를 통해 저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결혼이민 여성 ㄱ씨는 배우자와 사별 후 생계 어려움 속에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안산고용센터의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에 참여했다. ㄱ씨는 심리안정 지원을 통해 배우자 사별과 구직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고, 고용센터와 협력한 자치단체를 통해 임대주택, 지역아동센터 정보 등 복지 제도를 소개받았다. ㄱ씨는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서 전문 진로상담을 받고 이중 언어 능력의 강점을 살려 대학병원에서 의료통역사 실습을 거친 후 통번역 업체에 취업했다.

(기업 사례) "고용센터가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네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조업을 하는 ㄴ기업은 소규모 기업으로 오랫동안 채용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서울남부고용센터의 「기업지원종합서비스」에 참여했다. 노동부의 일터혁신 컨설팅을 받아 인사·노무 체계를 개선하고,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 역량도 제고할 수 있었다. 또한 고용센터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도움을 받아 공단의 구조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제품 경쟁력 향상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다양한 지원에 힘입어 ㄴ기업은 청년 등 8명을 채용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직무대리 김종철)은 11월 26일(수) 「2025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고 올해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와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두 사업은 고용센터가 구직자와 기업에 제공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과 채용을 돕는 것뿐 아니라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 전국 고용센터 담당자 등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대국민(구직자) 부문 15점, 기관 부문 15점, 「기업지원종합서비스」 대국민(기업) 부문 10점, 기관 부문 15점을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요즘은 비스포크(Bespoke)* 시대인 만큼 고용센터를 찾는 구직자, 기업에게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 내 고용센터와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찾는 우리 노동부, 우리 고용센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스포크(Bespoke): 개인의 요구, 취향, 조건에 맞춘 "고객별 맞춤 서비스"를 의미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 일자리 해법 찾는다.

2025년 11월 25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동이 있는"산업전환", 일자리 해법 찾는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출범

고용노동부는 11월 25일(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고용·노동 및 지역·산업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탄소중립 및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업종·지역에 대한 지원방안과 함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전환 및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고용노동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주요업종 현황 및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고용영향」과 「탄소중립 주요업종 인력수급 전망」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까지 월 2회 포럼을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산업전환에 따른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급격한 산업전환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누구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함께 적응하며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노동이 있는 산업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산업과 직무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전환에 대응하여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과 이직·재취업 과정에서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방안을 설계·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인적자원개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아세안+3가 만들어갑니다

2025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적자원개발의 지속 가능한 미래, 아세안+3가 만들어갑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
-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개발(HRD) 혁신'을 주제로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및 국제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 모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 그리고 세계은행은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제13차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동 포럼은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진행되며, 아세안+3 각국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 세계은행, 독일 국제협력공사, 아세안 사무국 등 국제기구 전문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국내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를 비롯한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아세안 11개국(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및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3 인적자원개발(HRD) 포럼은 아세안+3 지역 내 인적자원 개발의 정책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13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인적자원 시스템의 재설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HRD 혁신'을 주제로 하여, 빠르게 변하는 고용노동 환경 속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아세안+3 각국의 정책 개선 방향 및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20일(목)에 진행되는 기조연설에서 세계은행의 살만 아심(Salman Asim) 선임 경제학자는 '인공지능(AI) 전환과 노동시장의 인구통계학적 과제'를 주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구구조 변화로 노동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전환을 노동시장의 대응책으로 삼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제시했다.

이후 세션에서는 ❶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 기반의 인적자원개발 혁신, ❷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TVET)과 평생학습, ❸협력하는 인적자원개발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각 주제의 전문가 강연 및 아세안+3 각국의 사례 공유가 이어졌다. 특히 아세안 사무국의 칼 루키오 다퀴오(Carl Rookie O. Daquio) 선임은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을 위한 혁신적 직업능력 개발에 대해서 강연하고, 싱가포르 테마섹폴리테큰기 수 로우(Sue Lou) 선임은 싱가포르의 일학습 모델을 위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21일(금)에는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방문하여 아세안+3 회원국을 비롯한 참석자에게 우리나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무역량 체계 개편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투어에서는 현장에서 직업훈련 정책의 민관 협력 사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공장을 방문하여 한국 산업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고용노동부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아세안+3 역내 모든 노동자가 고용노동 환경 변화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아세안+3 회원국이 협력하여 소외계층의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은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일하는 방식과 산업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미래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여 더 큰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폴리텍 이철수 이사장은 인공지능 신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산업과 교육,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사람이 조화롭게 연결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협력하고 헌신할 것"이라고 밝히며 상호 발전을 위한 한국폴리텍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세안+3(ASEAN+3)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과 대한민국, 일본, 중국의 3개국이 포함된 협동 포럼입니다.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비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025년 11월 1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의 비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1월 14일(금) 신라호텔(서울 중구)에서 「202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채용 △교육·훈련 △성과관리 △이동 배치 △임금체계 개편 등 여러 분야에서 NCS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해 직무 중심 인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2015년~).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 ·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이번 경진대회는 △NCS 도입의지 △활용노력 △활용성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총 10개 기업을 NCS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 3개 기업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고용노동부 장관상 5점(최우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 5점(우수)

① SK주식회사AX -“ 직무역량이 곧 보상”…인공지능(AI) 인재관리 새 모델 제시

SK주식회사AX는 향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약 6만명의 인력 부족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무역량 기반 인재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직원의 직무역량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임금 같은 보상에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만들었다. SK주식회사AX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평가 모델을 동종 업계에 확산시켜,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임금 공정성, 경쟁력 향상을 이끌 계획이다.

② 영남산업(주) - NCS로 품질역량 39%↑ … 사내훈련 혁신 성공 사례

자동차부품소재 제조업체인 영남산업(주)는 새로운 조직으로 분사되면서 △핵심인력의 대거 이탈 △직원들의 역량 저하 △제품 품질 불안정 등의 위기를 겪었다. 회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NCS를 활용해 각 직무와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맞는 사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역량이 크게 높아져, 고객사의 품질평가 점수가 2년 만에 60.7점에서 84.4점으로 39%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③ 동아쏘시오홀딩스 - 13개 계열사 하나로 묶은 ‘표준 인재육성체계’ 완성

13개의 계열사를 품고 있는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계열사별로 인재육성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NCS를 기반으로 핵심직무를 도출해 ‘동아직무역량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13개 모든 계열사에 적용해 계열사가 같은 기준으로 교육, 성과관리, 기술전수를 진행하여 표준화된 인재육성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 시상식은 「2025년 하반기 NCS 리더스 클럽*」 행사와 연계하여 진행해 더 많은 기업이 다양한 NCS 활용 우수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다.

* NCS를 활용한 직무 중심 인사제도를 구축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 모임('22.7월 발족, 63개사 위촉)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직무 중심 인사제도를 도입하면 직무에 적합한 채용·교육·훈련과 공정한 성과평가·보상이 가능해져,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라고 강조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재직자 역량 강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를 이끄는 핵심 도구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발표회’ 개최

2025년 11월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발표회’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반 콘텐츠 부문 3개, 인공지능(AI) 콘텐츠 부문 3개 우수사례 선정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1월 12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서울 영등포구)에서 ‘2025년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사업’은 근로자가 원격훈련 수강 플랫폼(=아카이브)을 통해 고품질의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구독형 기업훈련 제도다. 올해 7천여 개 기업, 17만 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다.

지난 9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운영기관 20개소에서 제출한 31개의 사례 중 심사를 거쳐 6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일반 콘텐츠 부문은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 △주식회사 엘캠퍼스 △㈜휴넷이 선정되었으며, 인공지능(AI) 콘텐츠 부문은 △한국생산성본부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 △주식회사 엘캠퍼스가 선정됐다.

우수사례 선정 4개소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순위에 따른 상금이 수여됐다.

이날 행사는 경희대학교 김상균 교수(인지과학자)의 ‘인공지능(AI) 시대 언러닝*과 리러닝**의 혁명’에 대한 강연으로 포문을 열었고, 이어서 우수사례 선정기관 시상, 우수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됐다.

* 언러닝: 이미 알고있거나 익숙하게 사용하던 지식, 습관, 사고방식 등을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과정

** 리러닝: 언러닝으로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지식, 기술, 관점을 배우는 것

‘일반 콘텐츠 부문 1위’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는 글로벌 게임사 해긴의 제작 효율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원 대상 사전 인터뷰, 집단 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통해 기업 수요를 포착하고, 핵심 도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를 통해 작업 속도 50% 단축, 수정 회차 35% 감소 등 성과를 달성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공지능(AI) 콘텐츠 부문 1위’ 한국생산성본부는 카이스트(KAIST) 협업 실시간 특강, 생성형 인공지능·영상제작·프롬프트엔지니어링 등 프로젝트 기반 실습형 이러닝 과정을 개발해 산업 특화 인공지능 과정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솔루션 개발·업무 최적화,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기업 혁신을 이어간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우영 이사장은 “많은 기업이 이번 발표회에서 나온 우수사례를 통해 효과적인 기업훈련을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우수사례 입상기관 사례 요약

일반 콘텐츠 부문

구분	훈련기관명	주요내용
1위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	글로벌 게임사 해긴의 제작 효율 문제해결을 위해 구성원 대상 사전 인터뷰, FGI 등을 통해 기업 니즈를 포착하고 Blender·Unity 등 핵심 툴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작업속도 50% 단축, 수정 회차 35% 감소 등 정량 성과와 협업 효율성, 프리셋 공유문화 형성 등 정성 성과가 나타남. ‘족보(트렌드 관리 문서)’를 통해 툴 버전 및 기술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콘텐츠 갱신 시스템을 운영하여 아카이브 플랫폼의 ‘즉시성·최신성’을 제고함
2위	주식회사 엘캠퍼스	신입 엔지니어를 중심으로 비전공자도 이해 가능한 반도체 직무교육 표준 모델을 구축하여 신규 엔지니어의 교육 기간 30% 단축, 초기 불량률 감소, 부서 간 공통언어 형성이라는 성과가 나타남. ‘병아리반(기초과정)→CMP 과정(반도체 공정)→실시간 심화 과정’으로 이어지는 모듈형 확장 설계를 통해 Etch·Deposition 등 다른 공정으로의 확장성을 확보함
3위	㈜휴넷	근로자의 업무 적용력을 높이기 위해 소프트 스킬 중심의 직무역량 교육모델을 개발·운영함. ADDIE 모형 체계를 활용하여 AI 시대의 인재상과 필요한 핵심역량 개발을 목표로 한 워크플로우 러닝을 구현을 위해 콘텐츠는 인간 고유의 협업·창의·비판적 사고 등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역량을 강화하도록 설계하고, 개발 단계에서는 전문가 섭외 및 화면 구현 전략을 통해 콘텐츠 품질을 제고함

AI 콘텐츠 부문

구분	기업명	주요내용
1위	한국 생산성본부	KAIST 교수진 협업 실시간 특강, 생성형AI·영상제작·프롬프트엔지니어링 등 프로젝트 기반 실습형 이러닝 55개 과정을 개발하여 산업특화 AI 과정을 제공하였음. 기업의 솔루션 개발·업무 최적화·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기업 혁신을 이루었으며, AI-Inno Hub를 통한 KDT·KDC·기업주도훈련 등 타 사업과 연계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자 함
2위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	글로벌 뷰티 기업인 키스네일프러덕츠의 한국지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품질관리 부서 중심으로 스킬 단위 기반 교육체계를 설계함. 그 결과 보고서 작성시간 40% 단축, 문헌 관리 효율 35% 향상, QA 품질검증 시간 20% 절감 등 정량 성과가 나타남. ‘자체 콘텐츠 풀·전문 강사·CR(Course Report)체계’로 기획-운영-성과 환류를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스킬매치 기능을 통한 직무별 정량평가를 도입하여 학습성과를 인사평가와 연계함
3위	주식회사 엘캠퍼스	단순 툴 학습을 넘어 보고서·기획서·프레젠테이션 제작 등 업무 산출물 중심의 AI 활용 교육을 체계화하여 학습자가 수강 과정에서 생성한 결과물을 즉시 현업에 적용해볼 수 있도록 함. 또한, 실시간 심화 교육(제미나이, GPT 등)을 운영하여 학습-활용-공유-정착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리드타임 단축과 문서 품질 표준화를 동시에 달성함

열정과 기술로 그려낸 꿈의 스케치, 국가기술자격으로 색을 입히다!

2025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AI 전환에 대응하는 성장동력 확보**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직업계고 고등학생·학교 시상
- 학생의 진취적인 도전과 학교의 헌신적 지원이 이루어 낸 결실을 공유

① 고용노동부 장관상 이도원 학생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

15번의 작은 발걸음으로 정복한 포스코 철강 기술인의 꿈

☑ 포항제철공업고(경북교육청) 이도원 학생은 포스코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끊임없이 도전해 왔다. 첫 전공 자격인 열처리기능사 합격의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침투·자기비파괴검사** △**금속재료시험** △**제선·제강·압연** △**환경**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15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연이어 취득하며 기술인의 역량을 폭넓게 키워왔다.

☑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포스코 최종 합격으로 이어졌으며, "자격증은 단순한 취업 수단이 아닌 성장의 습관이자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도전하고 노력해 금속 분야의 세계 최고의 숙련기술 인재로 거듭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취득 종목 (15개) **기능사** 3D프린터운용, 금속재료시험, 설비보전, 승강기, 압연, 열처리, 자기비파괴검사, 전기, 제강, 제선, 천장크레인운전, 침투비파괴검사, 피복아크용접, 환경 (기타) 컴퓨터활용능력2급

② 고용노동부 장관상 박건우 학생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울산교육청)

국가기술자격 취득 열정, HD현대가 감동하다!

☑ 울산마이스터고(울산교육청) 박건우 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기능·기술 습득에 높은 관심을 갖고 직업계고에 진학하여 체계적인 계획 아래 다양한 자격취득에 도전해 왔다. 노력의 결실로 △**컴퓨터응용선반·밀링** △**설비보전** △**자동화설비** △**전기** △**승강기** △**금형** △**3D프린터운용** △**비파괴검사** 등 총 12개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며 기계·전기·품질 분야 전반의 실무 역량을 갖추었다.

☑ 내신 성적 또한 과 내 1위를 유지하는 등 강한 책임감과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보여주었다.

☑ 그 결과, HD현대일렉트릭에 최종 합격하여 기술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 뎠으며, 앞으로 산업기사·기사 자격 취득과 20대 기술사까지 도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취득 종목 (12개) **기능사** 3D프린터운용, 공유압, 금형, 기계가공조립, 설비보전, 승강기, 자동화설비, 전기, 전산응용기계제도, 침투비파괴검사, 컴퓨터응용밀링, 컴퓨터응용선반

③ 고용노동부 장관상 경북항공고등학교 (경상북도교육청)

국가기술자격으로 지리적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다!

☑ 경북항공고등학교는 항공정비사를 육성하는 항공분야 특성화고로서 △경북항공기술원과 연계한 자격증 수업을 진행 △**교과별 1:1 맞춤형 책임관리제 운영** △**주말을 활용한 기능사 온라인 수업 및 기출문제 풀이반 운영** △**분기별 모의고사 실시**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그 결과, 제9회 전국 항공정비기능대회에서 전 종목을 석권했고, 5년 연속 항공산업기사 99% 합격의 쾌거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자격 취득 지원으로 '25년 졸업생 1인당 약 5개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했다.

취득 현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격수(직무능력은행DB상) : 721개(3학년 기준 1인당 약 5.2개)**
(상위취득자격) 1위 항공기정비기능사(178개), 2위 항공전기전자정비기능사(99개), 3위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94개), 4위 항공산업기사(84개)

④ 고용노동부 장관상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이 최우선' 시대가 요청하는 소방분야 전문 인재에 앞장!

☑ 한국소방마이스터고는 소방 영마이스터 육성을 위해 개인별 목표 설정제와 현장실무를 지도하는 소방기술사 산학겸임 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도를 위한 교사의 직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주말 또는 방학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학교 내 자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과정평가형 자격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전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최적의 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학기·방학 구분 없는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의 노력으로 3학년 기준 1인당 약 4.4개의 높은 국가기술자격 취득률 성과를 달성했다.

☑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인력양성 유형에 맞는 산업체 위주로 약 160개의 산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산업체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학생 진로를 설정하고 개인의 로드맵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취업과의 연계성이 높다는 것이 학교의 자랑이다.

취득 현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격수(직무능력은행DB상) : 186개(3학년 기준 1인당 약 4.4개)**
(상위취득자격) 1위 전기기능사(45개), 2위 위험물기능사(36개), 3위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29개), 4위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26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11월 20일(목)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동대문(서울 중구)에서 「2025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학생·학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가기술자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격 등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직무능력은행**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자격·교육·훈련·경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자기계발, 인사관리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 시스템'

특히 올해는 시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미래 기술인재의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했으며, 시·도 교육청별 최우수상을 선정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 ('24) 학생·학교 부문별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 2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우수) 15점**
→ ('25) 부문별 고용노동부 장관상(최우수) 17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우수) 17점

이번 행사는 총 305개 학교와 16,934명 학생이 참가*했으며, 직무능력은행에 연계된 자격 취득 정보를 활용하여 정량평가에 반영했다.

*** ('24) 8,726명 참가 → ('25) 16,934명 참가**

학생부문은 △자격취득 노력도 △자격 취득 성과 △취득 자격 간 연관성을 기준으로 수기심사를 거치고, 학교부문은 △지원정도 △교과운영 성과 △취업성과와의 연계성 △학생관리 정도를 기준으로 발표심사를 거쳐 34명 학생과 34개 학교를 선정했다.

심사에 참여한 장학사는 "국가기술자격과 연계한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선생님들의 헌신적 지원에 감동받았다. 교육청도 미래 신산업 자격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실습환경 개선 △교원 전문성 강화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고도화 등 학생들이 미래기술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학교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국내 유일의 소방분야 직업계고인 한국소방마이스터고는 산학협력 기반 맞춤형 인재양성체계를 통한 성과를 공유했고, 학생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포항제철공업고 이도원 학생은 나만의 로드맵 설정과 노력으로 15개 자격을 취득해 포스코에 입사하기까지 과정과 소감을 발표했다.

또한, 포항제철공업고는 우수 학교로 선정됨과 동시에 최우수 학생 1명과 우수 학생 9명을 배출하여 많은 축하를 받으며 이목을 끌었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성공의 꿈을 이뤄내는 디딤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이들의 꿈이 모여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국가기술자격을 통해 꿈에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인력에 대한 투자가 곧 경쟁력’ 인재육성로드맵으로 육가공 전문가 키운다

2025년 11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력에 대한 투자가 곧 경쟁력’ 인재육성로드맵으로 육가공 전문가 키운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케이프라이드, 2025년 사업주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 중소부문 대상 수상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활용해 생산력 증대·시장 확대

육가공 전문기업 (주)케이프라이드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육성 로드맵’을 도입, 육가공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생산성과 품질을 모두 높이고 있다.
‘인재육성 로드맵’은 2014년 전국에 흩어져있던 경영, 영업, 생산, 물류 본부가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내 인력수급이 쉽지 않고 신규채용 인력의 연령대가 높아 새로운 조직문화 정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체계 구축을 시작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적 현장훈련 등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지금의 ‘인재육성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교육체계는 크게 △ 신입사원 대상 ‘기초인재’ △ 현장 실무자 대상 ‘전문인력’ △ 리더 대상 ‘핵심리더(KMBA)’로 운영하고 있다.
훈련과정 대부분은 사내강사로 양성된 내부직원이 맡아 진행하고, 교육자료도 직접 제작해 훈련과 현장이 밀접하게 맞물리도록 했다.

육가공 훈련에는 도축한 돼지를 직접 발골하는 고난도 실습까지 포함했고, 외부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자문을 요청할 정도로 전문성이 높다.
(주)케이프라이드는 2023년 공장 화재로 일시적 생산중단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공단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내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해 직무 교육을 지속했다. 그 결과 빠른 생산 안정화를 이뤘고, 신규시장 개척에도 성공했다.
올해 교육 투자액은 5천만 원 이상으로, 누적 훈련 참여 인원은 1천 명을 넘어섰다. 교육 이수 근로자의 시간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고, 퇴사율은 1년 새 9.7%에서 2.3%로 낮아졌다. 품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으로 도내 학교급식 및 군납 시장까지 납품 범위를 확대하는 데 성공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중소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영자원본부 김현준 본부장은 “시장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훈련을 활용한 새로운 훈련과정도 준비하고 있다”라며, “직원 역량이 곧 팀과 조직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만큼 내년에도 전문성 있는 훈련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연간 13만 개 기업의 215만 명이 교육·훈련을 받았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 사업주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특히 일시적 경영위기에 놓인 기업, 인재육성의 필요를 절감하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등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정을 구독형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의 비용 90%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도약 추진

2025년 11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국가자격시험제도 재도약 추진**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업무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추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출제 문항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스템은 신규 문제 출제 시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기존 문제와의 유사성을 검증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문제가 출제되지 않게 예방한다.
이를 통해 문항 중복 여부를 검토하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과정평가형 자격 등 1,165종의 출제, 시행, 자격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약 280만 개의 문항을 보유·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험문제 난이도 및 구성 최적화, 문항 참고자료 전자화(디지털 아카이브) 등 인공지능 기반의 출제 업무 고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시험문제 난이도 최적화’는 문제별 정답률 분석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롭게 보정된 문제의 난이도를 바탕으로 향후 시험문제 구성을 최적화하는 첨단 기법이다.
균질한 품질의 문제 출제를 통해, 국가자격시험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작년 4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 기능을 탑재한 ‘모바일 큐넷’ 앱을 선보였고, 10월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큐넷 홈페이지’를 개통했다.
또한 2027년 말 도입을 목표로 ‘차세대 자격정보시스템 2차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영상면접시험, 컴퓨터 기반 시험(CBT) 무인 신분확인, 자동화 프로그램(RPA*)을 통한 응시자격 서류 심사 자동화 등을 통해 업무 효율 및 국민 편익 극대화가 예상된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이우영 이사장은 “공단은 ‘출제에서 채점까지, 시험 접수에서 자격증 발급까지’ 국가자격시험제도 전반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디지털 혁신 중이다”라며, “공공서비스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가자격 출제 문항분석 고도화 사업

사업내용 언어모델을 통한 자연어처리(NLP), 광학문자인식(OCR), 수리적 최적화 알고리즘 등 AI 기술 적용을 통해 연관된 문항 통계분석 체계를 자동화하는 등 혁신적 출제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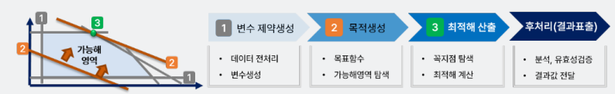
① **(AI 유사도 검사) AI 벡터 기반 유사도 검색 도입**
- 사전학습된 언어모델(LM)이 문항데이터를 단어 요소별로 분석해 벡터화*하고, 비교대상간 상대적 벡터 거리로 유사율을 측정

* 벡터 임베딩(vector embedding): 데이터를 수치화된 배열로 변환하는 방식

② **(디지털 아카이브) AI 문서구조화를 통한 참고자료 디지털화**
- 서적, 법령 등 문항출제를 위해 참고한 자료 일부를 OCR 기술및 AI 문서구조 분석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화, 문항정보 연계

③ **(시험 균일화) 문항세트간 난이도 균질화를 위한 최적화 구성**
- 문항세트 구성을 위한 선정기준, 난이도, 유형별 문제수 등 조건을 만족하는 최적해를 심플렉스(Simplex)* 알고리즘으로 탐색

* 선형계획법상 가능한 답 영역을 반복 검사하여 최적해를 찾는 수리적 최적화 방식



④ **(문항분석) 자격시험 전후 문항분석 등 문항 관련 통계 고도화**
- 문항별 수험자 응답정보 등 시행자료를 분석, 보고서로 표출
- 합격률 안정화를 위한 전문자격 프로세스(KEMS*) 적용

* 특허 제10-1673448호, 시험출제 난이도 조절 방법 및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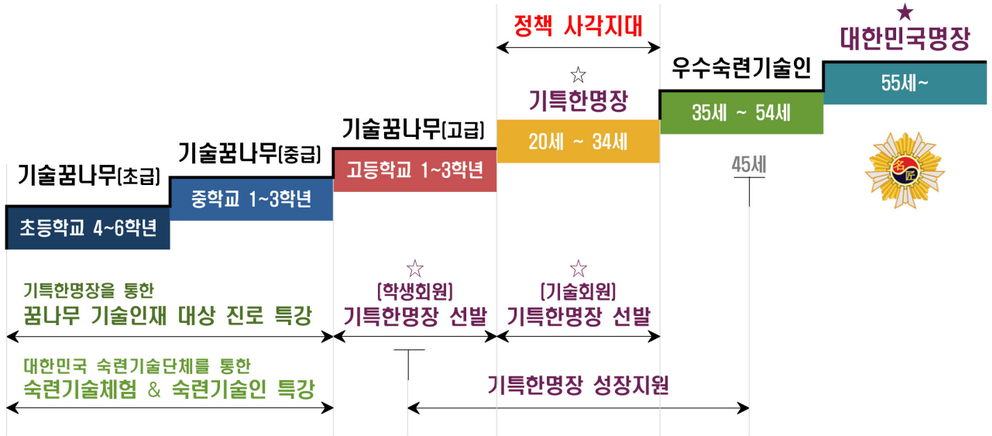
향후계획 공단 AX 추진 전략을 따라 확보된 문제은행과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해 출제·검토, 주관식 시험 채점에서 AI 활용 업무로의 전환 마스터플랜 수립
- **국가자격시험 서비스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향후 활용 확대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의 선도적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예정**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2025년 11월 1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청년 명장의 시대, 기특한명장이 열어나간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소년·청년 기술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재특별한대한민국명장' 제도를 새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숙련기술 인재 육성 정책인 대한민국명장 제도는 1986년 도입되어 40년간 총 719명의 명장을 배출하며 숙련기술 발전을 견인해 왔다. 다만, 대한민국명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15년 이상의 현장 경력이 필요해 평균 50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선발될 수 있어 청년층의 진입이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역량 있는 청년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기특한명장' 제도가 도입된다.



기특한명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경력자로 구성된 '기술회원'과 직업계고등학교 재학생 가운데 선정하는 '학생회원'으로 구분된다.

기술회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청년(만34세 이하) 중 희망자가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에 신청하면 선수협회장의 추천을 거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학생회원은 ①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②국가기술자격 취득우수자(다수, 고수준) ③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또는 ①~③ 상응하는 역량 보유자가 직업계고등학교장의 추천과 시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고용노동부로 추천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자는 매년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에 시상·격려하며, 도입 첫해인 2025년에는 12월에 별도로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술회원에게는 기특한명장 증서가 수여되며 학생회원에게는 증서와 장관상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명장 선정 시 가점부여, 대한민국명장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선발된 기특한명장들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시스템(hifive.go.kr)에 기술인재로 등록되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특강강사로도 활약하게 된다.

2025년 11월 중(11.19.~11.28.) 선수협회와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인력에 대해 12월 초에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시상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영훈 장관은 "기특한명장(기술인재 + 특별하다 + 대한 민국 + 청년명장)이라는 이름처럼 잠재력이 탁월하고 특별한 청년 기술인재들이 기특한명장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명장 등 숙련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텝(STEP)을 통한 성장 이야기

2025년 11월 2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스텝(STEP)을 통한 성장 이야기**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텝 학습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
- 평생학습, 자격증 취득, 직원 교육, 안전의식 확산 등 다양하게 활용 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는 11월 20일(목),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공공 직업교육훈련 플랫폼 '스텝(STEP) 학습 성공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러닝, 가상훈련 등을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공 직업교육훈련 플랫폼이다. 현재 인공지능(AI), 기계, 전기·전자 분야 등 2,247개의 콘텐츠가 게재되어 있으며, 연간 약 400만 명이 수강하는 대표적인 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www.step.or.kr)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스텝 활용 공모전에는 총 74명이 참여, 전문가 심사를 거쳐 현역 육군 중령인 김선웅 씨를 비롯하여 8명이 우수 이용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스텝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학습 경험을 공유했다.

학습자 김선웅 씨: 국방 분야에서 논문쓰고 정책 제안하는 전문가로 성장

국방 분야가 점차 디지털 전환되며 스마트국방 등 새로운 개념들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한 현역 육군 중령 김선웅 씨는, 스텝 인공지능 과정 학습 및 실습을 통해 인공지능 전문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국방과 기술'에 'AI기반 ARAS(육군 위험성 평가 지원 체계)발전방향 연구' 논문 기재,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전문가로 성장했다. 김선웅 중령은 "스텝은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자기 페이스에 맞춰 반복 학습할 수 있고 실습 위주로 학습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라며 "스텝이 많은 분들의 평생학습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용 소감을 밝혔다.

* 수강과목 : ▲AI 기반 비정형 데이터 분석, ▲AI 서비스 목표 수립, ▲데이터 아키텍처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

학습자 류한석 씨: 스텝이 열어준 두 번째 개발자 인생

30여 년간 자바(JAVA) 기반 시스템개발에 종사하다 사직 후, 시골에 머물며 재취업을 준비하던 류한석 씨는, 기존에 사용해 온 자바 기반 기술보다 파이썬(Python) 개발자를 우대하는 현실을 체감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된 스텝에서 파이썬 강의를 수강했고, 이후 웹크롤러를 개발하고 물류 최적화 프로젝트에 합격하여 다시 현업에 복귀하여 일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 수강과목 : ▲실패 없는 파이썬 기초

학습자 임진만 씨: 스텝을 활용한 직원 교육성과 제고

배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혁신팀 업무를 총괄하는 임진만 씨는, 교직원의 인공지능 역량을 높이는 과정을 기획하던 중 스텝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입문-응용-심화 과정'으로 구성된 배화여자대학교 맞춤형 'AIEDU+' 과정을 설계했다. 그 결과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학습효과도 향상되어 대학 신문에 우수 교육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 수강과목 : ▲인공지능과 사람, 함께 산다는 것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 논하다
▲인공지능 서비스 입문 ▲인공지능 학습교육가

학습자 최성복 씨: 스텝에서 배우고, 스텝으로 지식을 나누다

신소재공학을 전공했으나 막상 현장에서 요구하는 품질 및 규격 등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최성복 씨는, 스텝을 통해 관련 분야의 실무 지식을 보완한 뒤 금속재료기술사에 당당히 합격했으며, 이제는 스텝의 강의 제작에도 참여해 지식나눔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 수강과목 : ▲일반열처리 ▲금속 부식의 기초 ▲광학현미경 조직 평가 ▲기계적 재료시험 Part 1,2

학습자 이상달 씨: 스텝 학습을 바탕으로 안전의식 확산에 앞장서

스텝에서 산업안전관리 공통직무 과정을 수강한 이상달 씨는, 스텝에서 배운 데이터 기반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2주간 체계적인 현장관찰을 진행하여 안전모 턱끈 미착용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관리자 회의에서 스텝 내용을 공유하는 등 안전의식 개선 활동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턱끈 착용률이 기존 23%에서 89%로 상승하는 등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

* 수강과목 : ▲산업안전관리 공통직무(AI 모델)

학습자 이남선 씨 : 스텝으로 실무역량 강화, 조기 승진까지 성공

밀링공구 개발 연구원인 이남선 씨는 실제 절삭 현장에서 설계된 공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스텝 가상훈련에 참여하여 부족한 현장 경험을 보완했다. 이를 기반으로 회사 내 디지털전환 교육기획안을 제안해 현장 실무 교육(OJT)에 높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조기 승진에 성공했다.

* 수강과목 : ▲CNC밀링(다운로드형) ▲CAM_CNC밀링(머시닝센터) 조작하기

고용노동부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스텝을 통해 한 단계(STEP) 더 성장하고, 그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스텝이 모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최근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 분야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 · 게재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확대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유아이(UI)·유엑스(UX)를 개편하는 등 스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온통청년 주요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

2025년 11월 11일, 한국고용정보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온통청년 주요서비스, 책자 하나로 편리하게**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온통청년 홈페이지, 청년정책, 온라인 상담, 청년센터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주요 서비스 소개 및 안내

☑ 청년 ㄱ씨(취업준비생, 27세) 이번 책자를 통하여 그동안 몰랐던 온통청년의 다양한 홈페이지 기능을 새롭게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책자의 구성이 시각적으로 보기 쉬워 청년들이 흥미를 가지고 읽을 것 같습니다.

☑ 청년 ㄴ씨(취업준비생, 26세) 독자들로 하여금 청년정책 내용을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큐알코드를 넣은 점이 인상적이며, 온통청년 캐릭터를 활용하여 만든 책자여서 디자인에 더 눈이 갑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청년과 구직자들을 위한 온통청년 홍보 책자를 제작해 온통청년 인지도 제고 및 정책 체감도 향상에 나섰다.

이번 홍보물은 청년정책통합플랫폼 재구축 및 2월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새롭게 단장한 온통청년 홈페이지와 다양한 서비스(청년신문고, 챗봇 등)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책자는 총 64쪽으로 구성되어, 온통청년의 주요 서비스를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로 표현하여 청년의 일상을 온통청년이 함께한다는 메시지로 구성했다.

봄 장(챕터)에서는 온통청년 소개 및 홈페이지 주요 콘텐츠 안내(청년정책 통합검색, 청년신문고, 청년센터, 챗봇 등)를 통해 온통청년과 주요 서비스 기능의 인지도 제고를 모색했다.

여름 장(챕터)에서는 청년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청년정책*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이와 함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탐색 효율성 및 접근성을 높였다.

*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금융, 참여 권리 총 68개 청년정책 소개

가을 장(챕터)에서는 온·오프라인 상담 신청 절차 및 분야 등에 대한 안내와 실제 상담 후기 사례글(국민신문고, 상담 방명록)을 발췌하여 온통청년의 상담 만족도가 높음을 안내했다.

겨울 장(챕터)에서는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청년정책플랫폼과 청년공간 및 청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237개소의 청년센터 정보 안내 등을 통해 지역 내 청년정책플랫폼, 청년센터 정보 습득 및 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구성했다.

온통청년은 전국 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358곳에 안내 책자를 배포했으며, 온통청년 플랫폼 및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오픈채팅방 등)에도 홍보하며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온통청년 찾아가는 상담 및 채용박람회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온통청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청년들이 다양한 청년정책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에는 청년정책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다.

이창수 원장은 "온통청년 안내책자는 청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효과적으로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며, "많은 청년이 온통청년을 통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찾아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온통청년 안내 책자

취업 준비 혼자서 어렵다면? 고용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2025년 11월 1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취업 준비 혼자서 어렵다면? 고용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2025년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 개최
- 고용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성과 우수사례 발표

사례퇴사 후 자신감 하락으로 취업을 망설이던 ㄱ 씨는 우연한 기회에 인천고용복지+터에서 「성취프로그램」이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강점 찾기','취업 걸림돌 다루기'와 같은 심리적 지지 활동과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직무분석, 자기소개서 컨설팅, 모의면접 등으로 자신감과 취업역량을 높여 희망하던 회사의 영상편집 직종에 취업했다. ㄱ 씨는 "모의면접에서 나온 질문이 실제 면접에서 그대로 나와 너무 신기했다. 고용센터 프로그램의 알찬 구성이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12일(수) 「2025 직업진로지도 성과공유 세미나」를 열고 올해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직자의 취업의욕을 높이거나 구직기술 향상에 도움을 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유사한 특성(청년·중장년·업종 등)을 가진 구직자별로 맞춤형 심리회복 활동과 자기소개서·면접 클리닉 등 취업 컨설팅을 통해 취업의욕과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고용센터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전국 고용센터의 담당자 등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자신감 회복, 취업성공 등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개인 부문」 9점과 집단상담 운영 전 과정의 비결과 경험을 모은 「팀 부문」 6점, 총 15점에 대해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 시대라고 할지라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세심한 취업상담은 여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구직자들이 취업을 혼자 고민하지 말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취업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2025년 11월 2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대학이 키운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 개최
- 산업현장의 직무 요구역량을 반영한 4개 대학, 17개 교육과정 인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이하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11월 21일 서울가든호텔(서울 마포구)에서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 교육과정 인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Industrial Skills Council): 산업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로 전자·기계·정보기술 등 21개 산업 분야별로 구성·운영

** 산업별역량체계(SQF: Sectoral Qualifications Framework): 산업별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정의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학위·교육훈련·자격 등)을 제시하는 체계

수여식에서 남서울대 가상현실학과, 성신여대 뷰티산업학과 등 17개 대학 교육과정을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으로 인정했다.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대학교육과정'은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소관 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참여대학 교육과정과 비교·분석·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화학 △가상융합 △식품가공 △세라믹 4개 산업분야 관련 교육과정이 인정 대상이다.

수여식 이후에는 '산업별역량체계(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를 통해 △가상융합 △자동차부품생산 △물 산업의 산업별역량체계(SQF) 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이를 통해 최근 주목받는 산업분야와 대학교육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학과와 'K-뷰티' 산업의 교육과정이 '산업별역량체계(SQF) 기반 교육과정'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이 실제 현장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현장 중심의 인재 육성을 통해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것에 기대가 크다"라며, "공단은 한국형 인적자원개발 선도기관으로서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쾌거

2025년 11월 12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한국기술교육대 학생들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 쾌거진**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K하이닉스 '적층형(3D) DRAM 기술' 과제 수행, 심사위원들 "전문가 수준 분석" 극찬
- 메카·전자·신소재 다학제 협업 빛나, 정년 퇴임 앞둔 진경복 지도교수 '대통령상 2관왕'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학생들이 '2025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CPU, Campus Patent Universiade)' 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상금은 2천만 원이며, 2023년에 이어 2번째 대통령상 수상이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한 이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 지식재산 경진대회로 올해는 전국 79개 대학, 1,456개 팀에서 3,200여 명의 대학(원)생이 참여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 대회는 수상자에게 상금과 더불어 후원 기업과 연계된 취업 인센티브와 멘토링·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대통령상을 받은 주인공은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김현수 학생(3학년),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이가은 학생(4학년), 전기·전자·통신공학부 유재윤 학생(3학년) 3명이다.

이들은 SK하이닉스에서 출제한 '적층형(3D) DRAM 특허 분석 및 R&D전략 제시' 과제에 도전했다. 기존 평면(2D) DRAM(다이내믹 램)의 한계를 극복하고 메모리 집적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세대 메모리 기술인 3D DRAM을 대상으로, 특허 분석을 통해 핵심 기술과 기업 맞춤형 연구개발(R&D) 전략을 제안했다. 주요 수행 내용은 ▲기술 분류 및 장단점 분석, ▲정량 분석 기반 핵심 특허 선정, ▲기술 흐름도 작성, ▲기술 개발 동향 예측 등이었다.

이 과제는 이번 대회 30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지원 경쟁률을 보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선도기업 SK하이닉스가 출제했다는 점에서 산업적·기술적 가치가 높은 주제였다. 학생들은 단순한 특허 확보 전략이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구체적 연구개발(R&D) 방향을 제시해 큰 차별성을 보였다. 더불어 메카트로닉스 신소재·전자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협업을 통해 구조·공정 기술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실무형 문제해결력과 팀워크를 강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전공이 다른 세 학생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에듀테크 기반 공학교육·연구시설인 '다담미래학습관'의 학생 홍보대사 '도슨트'로 활약 중이다. 작년 12월부터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최첨단 랩(lab) 투어를 기획·운영하며 발표력을 키웠고, 4명 모두 반도체 분야 진출을 희망해 올해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과감히 도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허의 정량분석과 정성분석을 전문가 수준으로 도출해 냈다. 또한 발표 자료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해 특허전략의 중요성을 기술 분석을 통해 학습된 성과로 판단된다"라고 극찬했다. 이어 "학생 수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과제임에도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했고 특허 분석 결과와 논리적인 매칭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가은 학생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수천 건의 자료를 분석하며, 실제 공정으로의 적용 가능성과 기업 입장에서 경제적 가치, 향후 발전 가능성 등 저희가 SK하이닉스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대회에 임했다"라면서 "세 명의 팀원이 각 전공 분야별 강점을 파악하고 3D DRAM의 공정·소재·구조 등 다각적 관점에서 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김현수 학생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진경복 교수님과 2년 전 대통령상을 받은 선배님들, 기술자문을 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교육과 컨설팅을 도와준 공학교육센터와 라이즈(RISE) 사업단과 변리사님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재윤 학생은 "이번 대회는 반도체 업계 동향과 3D DRAM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지식, 인사이트를 폭넓게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라고 말했다.

'23년 대통령상 수상팀 육성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상 수상팀을 배출한 진경복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는 지도교수상을 받았다. 진 교수는 "내년 초 정년 퇴임을 앞두고 교수 생활의 마지막 지도였는데, 학생들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아 교수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주어 감격스럽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신서연·정원준·유성무 학생팀(전기·전자·통신공학부)은 현대자동차의 '차량 출입 시동에 적용되는 디지털 키' 과제에, 김다희·조민건 학생팀(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은 주성엔지니어링의 '3~5족 반도체 채널 소재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과제에 각각 도전해 장려상을 받았다.

유길상 총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모전에서 2년 만에 다시 대통령상을 받은 이번 성과는 한국기술교육대의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적 융합 교육의 결과임과 동시에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열정과 우수한 교수진, 차별화된 비교과 프로그램, 라이즈(RISE) 사업단 등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최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연구와 현장의 대표주자 '폴리텍'과 '카이스트(KAIST)'가 만났다

2025년 11월 20일, 한국폴리텍대학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연구와 현장의 대표주자 '폴리텍'과 '카이스트(KAIST)'가 만났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폴리텍대학, 카이스트와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 선도할 인재 양성에 '한 뜻' - 11월 20일 두 기관 간 업무협약과 피지컬 인공지능 인재 양성 포럼 개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11월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한국과학기술원(총장 이광형, 이하 '카이스트(KAIST)')과 피지컬 인공지능(Physical AI)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의 제조역량을 살린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데 뜻을 모아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한국폴리텍대학이 지닌 현장형 직업교육과 카이스트(KAIST)의 연구개발(R&D) 강점을 융합하여 산업 현장으로의 기술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의 '모두의 AI'와 'X-AI* 융합 인재 양성'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협력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기술 인재 배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X-AI: 인공지능(AI)을 다양한 산업·전공(X)에 융합하여 응용하는 형태 ex) Bio-AI(의료), Law-AI(법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지원·협력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 우수인재 육성 교육 △인력·시설·장비를 활용한 제조 피지컬 인공지능 기반 창업 플랫폼 구축 △제조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 공동 정책연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공지능·로봇·센서 융합 분야의 실무 중심 교육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학생들이 피지컬 인공지능 관련 산업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같은 날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개최되는 '2025 피지컬AI 글로벌 포럼'의 연계 세션인 '인재 양성 전략'을 주관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카이스트(KAIST)의 장영재 교수가 'AI전환기, 융합인재 확보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이어 한국폴리텍대학의 이혜정 교수가 'X-AI와 기술인재 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피지컬AI 패러다임에서 폴리텍대학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현장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포럼을 통해 산·관·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피지컬 인공지능 인재 육성 전략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최근 한국에 온 젠슨 황이 이재용, 정의선 회장을 찾아 깜짝 회동을 한 것처럼, 이번 협약은 현장형 피지컬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과 산업 현장 확산을 위해 카이스트가 한국폴리텍대학의 손을 잡은 것"이라며, "카이스트의 지식에 한국폴리텍대학의 현장기술을 완벽하게 결합해 피지컬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광형 카이스트(KAIST) 총장은 "인공지능은 이제 가상의 영역을 넘어 현실의 물리적 세계와 결합하며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라며 "카이스트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연구 중심의 첨단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산시키고, 한국폴리텍대학과 함께 피지컬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할 융합형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노사발전재단, 한·일 초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 심포지엄 개최

2025년 11월 12일, 노사발전재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노사발전재단, 한·일 초고령사회 대응 노동정책 심포지엄 개최**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 주제로 한국 노사정과 일본 정부·전문가가 함께 고령자 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해법논의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12일 서울 프레이저 플레이스 센트럴 호텔 2층 서대문룸에서 '초고령사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한·일 노사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이고,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양국 모두 노동력 부족과 숙련 인력 확보 등 공통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양국이 상호 학습과 협력의 관점에서 미래 고용정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은 정부·노동계·경영계가 함께 참여했으며, 일본은 후생노동성과 노동정책 및 고령자 고용정책 연구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정책 경험과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프로그램은 한·일 양국의 '고령자 고용지원정책 및 교육훈련', '고용연장 및 고령친화 일터 조성' 등을 주제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에는 한·일 양국의 전문가가 비교 발제로 참여해 정책 경험과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① 고용연장 제도 및 정년 이후 경력 활용 ② 전직지원·직무전환을 포함한 생애경력설계 지원 ③ 디지털 전환 시대의 재교육·평생학습 등 교육훈련 체계 고도화 ④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 및 협력 메커니즘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일본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은 일본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오학수 특임연구원은 "일본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 노사가 이를 자율적으로 수용해 제도와 임금 수준을 결정해 왔다"라며 "한국은 노사 자율 합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되,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사회보장 유지와 소득 공백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주도하면서, 구체적인 제도와 임금 수준은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한국 측 연구 프로젝트매니저(PM)를 맡은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는 "한국은 기업의 자율적 정년 연장과 전직지원 등 고령자의 지속적 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동시에 세대 간 균형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 확립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한·일 양국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고용 안정에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일본의 체계적인 고령자 고용제도 운영 경험은 한국의 정책 발전과 사회적 합의 형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성대학교 임서정 교수는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층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세대 간 조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에이펙(APEC)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 회복과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만큼, 고용노동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가겠다"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정년 연장 등 양국이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교류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계간] 2025 가을호 고용이슈

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11월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계간] 2025 가을호 고용이슈**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고령사회 대응과 정년 이후 고용 전략
- 직업 자격과 채용 간의 실질적 연계 분석
-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과제
- 중장년층 재취업 및 고용 유지 방안
- 고용시장·보험·채용 트렌드 종합 진단

주요목차

- [기획특집] 정년 이후의 고용: 해외 사례 진단과 시사점
- [[이슈분석] 국가기술자격증, 남성 육아휴직,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 방안, 스탁-플로우 분석
- [고용동향] 고용보험 및 구인구직 동향

2026 HRD Trend Report

한국생산성본부 2025년 10월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6 HRD Trend Report**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스킬 중심의 HRD 전환
- AI 및 디지털 역량 강화 요구
- 리스킬링 / 업스킬링 확대
- 학습경험 기반 교육 설계
- 기업유형별 특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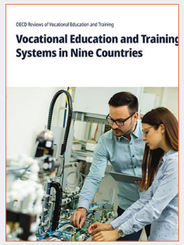
주요목차

- 1,754명 직장인들이 전하는 HRD 현황과 전망
- KPC 교육 데이터로 답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2026 HRD Insight
-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읽는 2026 HRD Tre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in Nine Countries

OECD 2025년 10월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in Nine Countries**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국가별 VET 구조의 다양성
- 일·학습 병행의 중요성
- VET의 평생교육 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 국가 간 제도 비교를 통한 정책 함의
- VET의 지속가능성 및 적응성 강조

주요목차

- VET 제도 구조, 입학 경로, 교육-훈련 방식
- 학교 기반 교육 vs 직장 기반 학습
- 진로 전환, 상위 교육으로의 진학 경로
- 각국 시스템의 정책 설계, 제도적 특징
- 시사점 및 정책 권고

중장년 퇴직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5년 10월 **저자: 이상준, 문상균, 최광성**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중장년 퇴직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구**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 중장년 퇴직자 대상 고용환경 변화 진단
- 지역별 고용 여건 및 정책 환경 분석
- 중장년 특화 일자리 창출 유형화
- 해외 사례와 정책 벤치마킹
- 정책 제언: 지역 맞춤형 재설계 방향

주요목차

- 베이비 붐 세대의 자산 및 소득 분석
- 지역의 일자리 분석
- 일에 대한 중고령자 인식 조사
- 지역 일자리 정책과 사회기여 소득 일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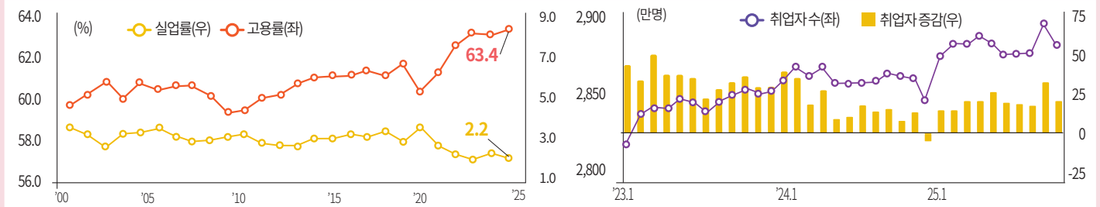
2025년 10월 고용동향

고용노동부, 2025. 11. 12.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5년 10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률(63.4%) · 경제활동참가율(64.8%)은 월간 역대 1위, 실업률(2.2%) 취업자수 +19.3만명 증가

- ○ 15세 이상 고용률(63.4%)로 전년대비 상승, 15~64세 고용률(70.1%, +0.3%p) 역대 1위
- ○ 경제활동참가율(64.8%, +0.1%p) 역대 1위
- ○ 실업률(2.2%, △0.1%p) 10월 기준 역대 최저 2위
- ○ 취업자수 전년대비 +19.3만명 증가,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3.4만명 감소

⇒ 15세 이상 고용률 · 실업률(원계열, 매년 10월) +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비)



☑ (산업) 서비스업 증가폭 축소, 제조업 감소폭 축소, 건설업 감소폭 확대

- ○ **서비스** 최근 내수 개선흐름으로 연관 서비스업(예술여가, 숙박음식, 도소매 등) 중심 증가폭 확대되며 56개월 연속 증가(+58.8→+48.1만명)
  - 도소매(2.8→4.6만),숙박음식(2.6→2.2만),예술여가(7.5→7.0만) 등은 소비심리 회복 및 소비쿠폰 등 정책효과에 따라 증가세 지속
  - 장기간 증가세 지속되었던 전문과학(2.9→△0.2만)은 56개월만 감소 전환, 교육서비스(5.6→1.2만)는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축소
  - 보건복지업(30.4→28.0만)은 돌봄수요 증가 및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지속되며 취업자 증가
- ○ **제조** 내수회복세 및 반도체·선박 등 양호한 수출 실적 등으로 감소폭 축소(△6.1→△5.1만명)
- ○ **건설** 전월 큰 폭 개선(전월비 +5.1만)되었으나, 긴 명절연휴에 따른 조업 영향 및 강수 등으로 감소폭 확대(△8.4→△12.3만명)
- ○ **농림** 상반기 작황부진 여파로 인해 감소 지속(△14.6→△12.4만명)

☑ (지위·연령) 상용직 비중 57.2%(+0.6%p), 3~50대 · 고령층 고용률 상승

- ○ **지위** 상용직 증가폭 축소(+28.6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無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중심으로 감소
- ○ **연령** 30대 이상 연령대에서 고용률 상승, 청년층은 하락폭 확대
  - 청년층 고용률(44.6%, △1.0%p) 하락, 실업률(5.3%, △0.2%p) 하락
  - 청년층 쉬었음(40.9만명, △0.9만명)은 6개월 연속 감소
  -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 5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60세 이상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

☑ 긴 명절연휴에도 불구하고 10만명대 후반 증가, 경제활동참가율·고용률 역대 최고, 내수 개선으로 서비스업 중심 증가세, 다만 건설업·청년 등 어려움 지속

- ○ 서비스업은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숙박음식·도소매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고용 확대 요인으로 지속 작용
  - 다만, 교육서비스·전문과학 등 장기간 양호한 흐름 지속된 업종은 증가세가 조정되며 9월 대비 서비스업 증가폭이 축소
- ○ 제조업은 내수 개선세 및 반도체·선박 등 주요품목 수출 호조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 축소
- ○ 건설업은 조사기간 강수 등 기상요인, 명절연휴에 따른 조업영향 등으로 2개월만에 감소폭 확대
- ○ 청년은 6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고용률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

⇒ 성장과 고용의 선순환 지속을 위해 내수 활성화·취약부문 보완에 총력,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 노력

❶ 소비회복 모멘텀이 고용으로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노력 강화하고, 對美 관세 협상 후속조치 등 통상 리스크 완화에 총력
❷ AI 대전환·초혁신경제·생산적 금융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고용노동부

- 11.11 기특한명장 제도 도입·시행
- 11.14 2025년 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시상 및 NCS 리더스 클럽 개최
- 11.20 2025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학생·학교 시상식
- 11.20 스텝(STEP) 학습 성공 우수사례 시상식
- 12.5 외국인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 간담회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11.12 2025년 디지털 원격훈련 아카이브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11.20 2025년 ASEAN+3 HRD 포럼 개최
- 11.20 2025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 학생·학교 시상식 개최
- 11.21 2025년 SQF 사업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 12.4 고용행정 개방데이터 활용 학술대회
- 12.5 2025년도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 개최
- 12.9 AI 기반 고용서비스 글로벌 서밋 웨비나 개최
- 12.1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인증수여식
- 12.11 한국직업자격학회 동계 학술대회 공동개최
- 12.23 충남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12.12 능력개발교육원 스타훈련교사 13기 위촉식
- 12.18 능력개발교육원 「훈련 교 · 강사 역량강화 특강」 개최(앰배서더 서울 풀만)
- 12.1~12.16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신규기관 역량강화 교육
- 12.9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신규 선정 결과 공고

한국폴리텍대학

- 12.29~1.16 026학년도 학위과정 정시 원서접수
- 12.1~12.14 미래내모습그리기대회 오송역 전시
- 12.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성과 세미나
- 112.4 2025년 캡스톤 프로젝트 작품대회 개최
- 12.8 국민연금공단 '중장년 직업교육 공동운영' 업무협약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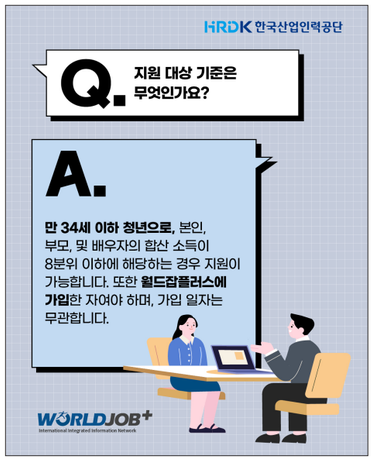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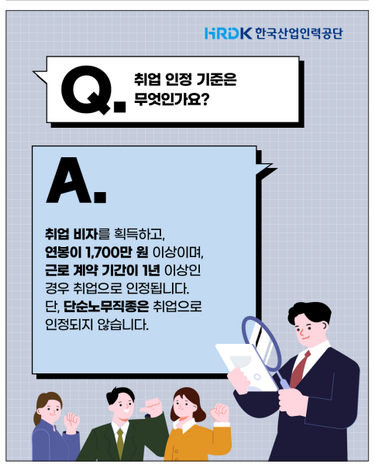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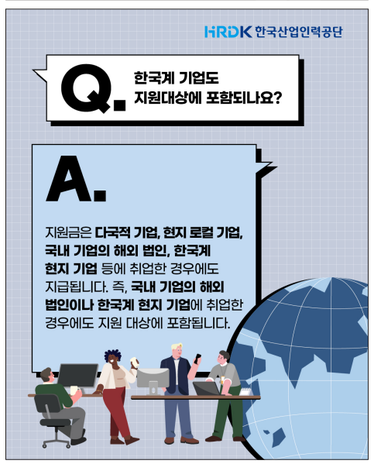
- 11.4 제3차 ISC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포럼
- 11.5~11.6 글로벌 인재포럼(2025)
- 11.6 마이스터고 신규지정 설명회
- 11.6 제5차 직업능력개발 포럼
- 11.7 제9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포럼
- 11.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정책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청년의 길을 묻다」
- 11.2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보고회
- 11.26 제9차 국가진로교육포럼
- 11.30~12.3 한-몽골 국제 세미나 개최, TRIPLSP와 MOU 체결
- 12.9 직업계고 교육과정 학점제 정책 포럼 및 성과보고회
- 12.9 2025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성과보고회
- 12.12 제7차 직업능력개발 포럼
- 12.18 2025년 진로교육 성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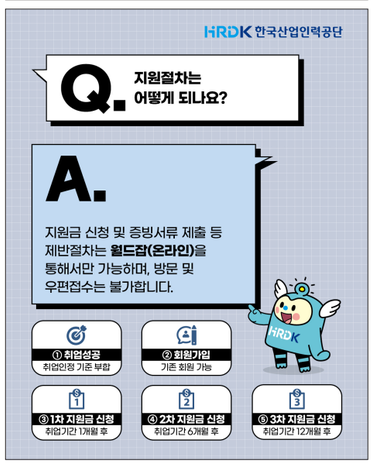
HRDK가 알려드려요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이란?









목적 Goal

숙련기술이 더 빛나는 특별한 대한민국

목표 Objective

청년명장(기특한명장) 육성 & 배출

시상 & 성장 Prize & Growth

△(시상식) **매년 숙련기술인의 날**(9월 9일)
※ 다만, 2025년 첫해에 한 해 12월에 별도 시행
△(기술회원)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증서 수여**
△(학생회원) 기특한명장 **증서**와 **장관상 수여**
△(학교) **우수학교 상장**과 우수학교 **현판 증정**
△(교육청) **최우수교육청**에 **상장**과 **현판 증정**

시상

우대사항(안)

△대한민국**명장선정**시 **가점부여**(향후 관련 규정 개정)
△現 대한민국명장 등(기능한국인, 기능전승자)과 **1:1 멘토-멘티제 운영**
△기특한명장 회원 간, 숙련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 참여**
△**리더십, 교수법 등** 각종 **연수** 및 **캠프 참여** 등

기특한 명장

(사)대한민국숙련기술인총연합회

연수 & 캠프 | 각종 봉사 활동 | 기술 전수 활동 | 네트워킹 등 | … | … | [사] 대한민국 명장회 | [사]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 | [사] 대한민국 기능 전승자회 | [사] 기능 한국인회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 기술인재 성장 비전을 제시하는 진로 특강

선정 절차 Process

공고	추천	심사	선정
선발 공고 [노동부,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기특한명장 선발계획 공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기술회원 **1차 추천** [본인] △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장 학생회원 **1차 심사·추천** [시·도 교육청] △시·도교육청 자체 심사 △대상자 선정·추천	기술회원 **2차 심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결격사유 조회 학생회원 **2차 심사**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서류 및 면접 심사 △결격사유 조회	**최종 선정**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기특한명장 선정 심사위원회 최종 선정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등 고려 가능

신청 & 추천 Challenge & Recommendation

기특한명장(학생회원) 신청 & 추천

신청 요건(안)
△[1]전국기능경기대회 우수입상자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포함]
△[2]국가기술자격 취득 우수자 [多數, 高수준]
△[3]기술분야 특허나 발명 보유자
△①~③요건에 상응하는 역량 보유자 등

추 천
△[추천] 시·도교육감
△[추천 규모] 시도별 2명 이내
* 단, 서울 3명, 경기 4명 이내
△[선정 규모] 20명 이내
* 대한민국명장 선정 규모 준용

기특한명장(기술회원) 신청 & 추천

신청 요건(안)
△국제기능올림픽 국가대표 경력 선수 중 청년(만 35세 미만)
△대한민국명장으로 성장을 꿈꾸는 자
△기술꿈나무[중학생 등] 대상 진로 특강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진로 특강의 교수 역량을 갖춘 자 등

추 천
△[추천] 국제기능올림픽 선수협회장
△[추천 규모] 제한 없음
* 단, 35세 미만 청년에 한함
△[선정 규모] 제한 없음
* 단, 결격사유 등 고려 위원회 결정

개요 Overview

기특한명장

△기술인재 + 특별하다 + 대한민국 + 청년청소년명장
△기특하다* = 대견하고 칭찬할 만하다
*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기술인재의 노력과 성장을 긍정적으로 칭찬할 때 사용

BI(Brand Identity)

△'기술인재'의 'ㄱ'을 형상화한 바람개비, 햇살, 그리고 돌풍의 주역을 의미
△대한민국(KOREA)의 알파벳 'K'를 형상화
△회색 날개는 성장해 나가는 인재의 잠재력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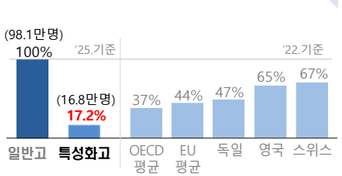
추진 목적

진로 길잡이 + 성장 디딤돌 = 청년 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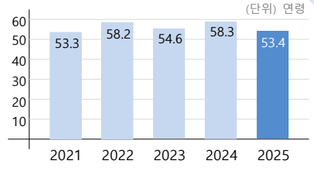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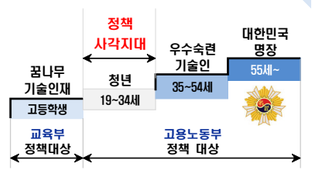
학생 대상 진로 특강, 봉사활동 등 | 현역 명장과 1:1 멘토-멘티 활동, 연수&캠프참여 등 | 청년 명장으로 선정, 숙련기술 새바람 확약

추진 배경 WHY

취약한 기술인재 육성 교육시스템



신규 대한민국명장 선정자의 고령화 현상 심화



청년명장 육성 정책으로 사각지대 해소 필요